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사무실 063-2400-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음 10월 26일) 제194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12일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에서 최정호 정무부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출자회사 관계자,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기업체,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농공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관련기사 10면>

탄소국가산단 타깃기업 집중공략

전주시, 투자유치 본격화

탄소융합기술원 등과 연계 우량기업 유치 R&D기관과 공동으로 투자길잡이단 운영 MOU부터 투자완료까지 지속 관리키로

중의 집적화를 위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북테크노파크, 캠퍼 등 지역 R&D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기업 유치를 힘쓰기로 했다.

또한, R&D기관과 공동으로 투자길잡이단을 운영, 투자예정기업의 MOU 체결에서 투자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R&D기관과 연구소, 대학 등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타깃기업

선정, DB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후, 수도권 등 각 지역별 타깃기업 방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탄소산단 입주에 관심이 높거나 이전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별하고, 관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집중공략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접촉·유치활동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탄소기본소재부터 최첨단 항공부품 생산까지를 아우르는 산업단

지로 자리매김하면,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680억원을 들여 63만 8000㎡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국내 탄소관련 기업들이 이전하고, 기존 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이뤄내 전주가 세계적인 탄소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탄소산업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올해 전북 SW강소기업은?

도, 시스젠 등 11곳 선정 3년새 총 20곳으로 늘어

전북도가 2017년도 전북 SW강소기업으로 (주)시스젠, (주)코스텍 등 11개사를 선정하고, 12일 전북 SW강소기업 시상식을 통해 대표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전북도는 융복합 SW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발전 노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비전을 제시한 '전북 SW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5년 3개사를 시작으로 2016년 6개사, 올해 11개사를 추가적으로 선정했다.

기업 선정은 일정 수준 매출과 고용실적, 기업 혁신의지 등 정량과 정성의 균형 있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난 11월 1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전북 SW강소기업이 총 20개사로 늘었다.

이외에도 도내 SW기업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6년까지 신규고용 70명 창출, 매출액 27% 증가 등 꾸준히 성과를 보이고 있다.

(주)새논의 백철열 대표이사는 "전북도와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R&D)지원을 받아 CCTV상태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CSM)을 개발하고, 상용화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SW기업의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R&D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도 전병순 미래산업과장은 "2015년 도부터 추진해온 융복합 SW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수혜기업의 결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지역 SW/IT 산업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통한옥체험관 '별이 되다'

남원예촌, '2017 한국관광의 별' 선정

남원시와 (주)이랜드파크가 손을 잡고 운영 중인 남원예촌(by Kensington)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가 주관한 관광한대 숙박부문 2017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어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개관한 남원예촌(by Kensington)은 남원시가 광한루원 주변 관광권역의 확장을 위해 2020년까지 5단계에 걸쳐 추진 중인 '남원예촌 조성'의 1차 사업으로서, 최기영 대표장과 이근복 부회장을 비롯한 분야별 한옥명장들이 자연에서 얻은 재료만으로 전통건축방식을 재현한 한옥체험관이다.

남원예촌은 "천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다"라는 컨셉으로 순수 고(古)건축방식은 재현하되 탈보드레한 서비스 및 어메니티로 전통한옥은 불편하다는 편견



을 깬다. 국악·전통놀이·한복 등 전통적인 체험요소를 결합하고 조선시대 대표 정원인 광한루원을 연계하는 등 대한민국 체험관광 브랜드 발전에 이바지할 공을 인정받아 개관 1년 반 만에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이원수장은 "이번 수상은 명실상부 남원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남원예촌과 남원 전역의 관광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문 대통령 오늘 중국 국민방문... 靑, 3박4일 방중 일정 공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민 방문 3박4일 일정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출국 하루 전인 12일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 일정으로 중국

에 정확한 교민들과 동포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인들과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연설을 한다.

둘째 날인 오는 14일 오전 문 대통령은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경제 통상 분야

에서 두드러진 협력을 보여 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정상 간의 우의를 다진다.

방중 셋째날인 오는 15일 문 대통령은 오전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을 한다. 이어 장더강(張德江) 전국인민대

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強) 총리를 면담한다. 문 대통령은 중국 핵심 인사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이날 오후 충칭으로 이동한다.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제5공장인 총칭공장을 방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후 귀국길에 오르는 3박4일간의 중국 국민 방문 일정을 마친다. /뉴시스